

아름다운 사람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도전

— 인천서구보건소 김영란 사회복지사 —

취재/기사: 심명주 _ (프리랜서, 사회복지계)

사진: 김희현 _ (프리랜서)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영역 진출이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도전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인천서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김영란 사회복지사. 그녀는 국내 최초로 보건소 내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이다. 방문보건사업팀의 한 일원인 그녀는 모든 것이 새롭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녀,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란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았다.

보건소 내 최초 사회복지사

방문보건사업팀에 투입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보건소 내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장해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찾아가 보건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예방차원에서 혈압이나 당뇨검사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 건강 문제 뿐 아니라, 가정문제나 지지기반의 미약 등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복지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절실했고, 그곳에 김영란 사회복지사가 당당히 투입된 것이다.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간호사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제가 개입해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자원들과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타 지역에서는 간호사들이 직접 이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업무가 많아 지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의료비지원과 같은 업무는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각자 일을 분담해서 자기 본연의 전문적 영역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와 지역사회자원

연계의 실례

김영란 사회복지사가 근무한지 아직 2달도 안되었지만 몇 번의 좋은 결실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피부암에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86세의 여자 어르신이 방문보건팀의 대상자였는데, 4남 3녀 중 아들 셋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있어 정년퇴직을 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

다. 가족이 있는 나이든 아들은 대상자인 어머니를 모시느라 일을 할 수 없었고 부인이 벌어오는 적은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이 가정은 한명이라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대상자인 어머니를 보살펴 줄 무료 가사간병인을 필요로 했고, 직접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재가복지 쪽에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 직접 면접을 해보니 자원봉사자는 간병인으로 직업을 얻고 싶어 했고 그 준비 작업으로 잠시 자원봉사를 하길 원했던 것이다. 가정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준 얼마 후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대상자 가정에서 적지만 외국에 있는 딸들의 도움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월급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 일거리가 필요했던 간병인에게는 일거리가 생겼고 좋은 간병인이 필요했던 대상자 가정도 만족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

그 외에도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무료 백내장 수술이나 틀니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의료사회사업가로의 1년, 맨발로 뛰는 개척의 시간들

보건소에 오기 전 그녀는 인천시 내에 있는 성민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성인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환자 들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 병원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연계 등 다양한 사업들은 했고, 그로 인해 병원 내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성민병원에서도 그녀는 최초의 사회복지사였다고 한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내 직원들은 사회복지사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자리에는 말 그대로 텅 빈 책상만 덩그러니 있었다. 업무를 위한 서류 한 장 만들어져 있지 않

복합적 위기상황의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



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발로 뛰며 개척하기 시작했다.

“먼저 무작정 한강성심병원의 최경애 선생님(전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조언을 구했어요. 그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먼저 환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수익을 내야하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왜 채용했는지 생각해보라’ 저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며 일했고,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병원 이 곳 저곳을 뛰어 다녔다고 한다.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병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닌 것이다.

“병원이 있던 지역은 무척 열악했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거나 수술비는 많이 드는데, 환자들은 대부분 전문직이 아닌 공장부지의 노동자들이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개인의료비 지원요청을 수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내 여러 시설과 기관들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얘기를 나눴어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다행히 외부기관에서 보는 병원의 이미지도 좋았고,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일을 좋게 인식해 주었어요. 사회복지사를 뽑을까 말까 고민했던 병원이 이제는 사회복지사 2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무실이 아닌 지역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찾은 그녀만의 복지

이렇듯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열정이었다.

우선 환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과 병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시도해 봤다는 그녀.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스쳐지나가는 간판들을 유심히 살폈고, 그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전화번호를 적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수시로 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종이접기 문화원’이었다. 전화로 문화원 원장님과 의도적인 인연을 맺어, 무료로 환자들을 위한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주 1회 1년 동안 원장님이 직접 자원봉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고 필요한 고가의 재료비와 강의료까지 모두 원장님이 무료로 제공해 주셨다고 한다.

“1년 내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거의 밖

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 보다는 밖에 찾아다니는 일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지역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 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변화하는 사회복지의 일

사실 그녀는 뒤늦게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있던 은혜병원에서 타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녀는 다소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신의 일에 비해 언제나 변화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복지사의 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공부하여 사회복지사가 된 것이다. 은혜병원의 사회복지사인 남편도 그녀를 많이 격려했다고 한다.

“그때는 사회복지사의 일이 축복된 일로 보였어요. 항상 변화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어려움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강요받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때로는 틀에 박히고 반복적

인 일이 그리울 정도로, 찾아서 일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며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사회복지를 왜 하게 됐냐고 물으시면 그냥 웃어요.”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그녀는 또 한 번 개척과 창조, 변화의 자리에 서있다.

새로 시작된 사회복지 현장이 그렇듯 일을 찾아내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할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녀는 성급하게 무엇을 해내겠다고 다짐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1년 동안 보건소 내 사회복지사 김영란으로 최선을 다하고, 복지차원의 일들을 찾아내어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처음 부푼 기대로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그때처럼, 성민병원에서 일했던 그때처럼 새로운 일에도 전하고 개척해가는 김영란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인천서구보건소에서 김영란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협조하여 일하고 있다.